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재 한

대북정책 상호주의가 필수다

오는 29일 제19대 국회가 출범한다. 임기 개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거취가 아직도 논란중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몇몇 비례대표 당선자의 북한정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북한 이슈는 한국 사회를 나누는 주요한 이념적 기준이다. 북한은 직간접적으로 남한 정치의 큰 축이 되어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심화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에서 강한 바람은 실패하고 따뜻한 햇볕이 성공했다는 이솝우화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는 따뜻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뜻한 대북정책은 다른 이솝우화로 비판되기도 한다. 숲은 도끼자루가 필요한 나무꾼에게 나무 한 그루를 선의로 주었지만, 나무꾼은 그 도끼로 숲의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대북지원은 남침 능력만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적대적인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지속적인 관용이 있어야 한다. 3년의 전면전과 60년의 냉전을 겪고 있는 남북한이 상대의 마음을 단기간에 얻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마음보다 행동이 협력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상호협력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상호주의가 거의 유일하다. 적대적인 상대에게 모조건 강경하거나 무조건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호협력에 도움되지 않는다. 대신에 상대의 행동과 유사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호협력을 실현시킨다.

만일 상대가 나의 행동대로 행동한다면, 나의 협력은 곧 상호협력이고, 나의 적대는 곧 상호적대이다. 상호적대보다 상호협력이 더 나은 상황에서는 내가 협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북정책 기조가 승공(勝共)이었던 20여 년 전, 필자가 남북한 공영(共榮)을 위한 상호주의 대북정책 제안했을 때 비판이 있었다. 북한에게 호의적 행동을 먼저 행한 후 그 다음부터는 북한의 행동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상호주의는 대북 유화정책이라고 비판되었다. 그러던 대북 상호주의는 대북정책 기조가 포용(包容)이었던 10여 년 전에는 북한의 상황을 외면한 대북 강경정책이라고 비판되었다.

필자는 7년 전 한 외국 학술지에서 상호주의가 반드시 등가(等價)적, 즉 쌍방의 협력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상대 행동 그대로 즉시 반응하지 않더라도 상대 행동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응한다면, 상호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의적·적대적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 시차를 두고 일정 비율만큼 상대 행동에 따라 대응하기만 해도, 상호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상대 행위에 따른 조건부 협력이 상호협력 실현에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은 정권에 따라 정부 정책이 뒤바뀌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대북정책 기관들도 정권에 따라 정책이 심하게 바뀌는 부처이다. 대북정책 부처가 사법부처럼 독립되어 초(超)정권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북정책은 국내 정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무릇 정책이란 일관성을 지녀야 정책효과를 갖게 된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상호주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는 것은 엄밀한 정책적 기준이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단순한 강경·온건의 대북정책 스펙트럼으로는 남북한 관계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대북 강경이냐, 대북 유화이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북한 협력을 남한 협력의 조건으로 보느냐로 논쟁 되어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따른 대북정책이 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한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여수박람회 단체학생 유인책 마련해야

여수박람회에 대한 초·중·고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막 후 관람객 수가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데다 기대했던 학생 단체 관람마저 적을 것으로 보여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로 광주·전남교육청이 조사한 '여수박람회 수학여행지 선택 의향 보고'에 따르면 광주는 305개교, 24만8000명 가운데 53개교, 1만6000명만 선택해 6% 의향에 그쳤다. 전남 역시 1391개교와 99개 분교 27만9000명 중 286개교, 7만여 명으로 25%에 불과했다. 교과부 조사 결과 타지 학교들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결과는 조직위 측의 학생 관람 예상과도 차이가 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위는 방학 때가 되면 학생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발적인 관람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 방학 때라고 많이 찾을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국가행사라고 강제동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단체 관람은 학생·학부모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학생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부담을 갖는 것은 여타 수학여행지에 비해 입장료가 비싼 탓이다. 박람회 단체 관람료는 1만7000원으로 경주 등지의 1만 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또 수도권 등지에선 경주보다 거리가 멀고 추가 부담도 많아 선뜻 수학여행지로 선택을 꺼리는 것이다. 교과부가 학생 단체관람료 인하를 요구한 이유다.

학생들에게 박람회는 미래 세계에 대한 체험의 장으로 식견을 넓힐 절호의 기회다. 조직위는 학생 단체 관람객에 대한 할인율을 대폭 늘려 학생들의 관람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 교육당국이나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대형사고 우려되는 고속도 화염병 피습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고된 신차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탁송용 트레일러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화염병이 빗나가 이렇다할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불이 붙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0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JC지점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나모(42)씨가 신차 8대를 싣고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화염병 3개가 날아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곧바로 꺼졌다고 한다.

나씨는 경찰에서 "밤길이라 어두웠지만 복면을 한 남성 3명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m 높이의 교량 도로에서 범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씨의 차량이 보이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미뤄 최근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문제로 파업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 비노조원에 대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시위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화염병 투척사건은 밤길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뒤따르는 차량으로 인해 연쇄충돌이 불가피한데다 불길이 도로 전체를 뒤엎을 경우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는 차량도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반드시 범인들을 검거해야 한다. 4년 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차량에 쇠불이를 투척해 물의를 빚었지만 유야무야 처리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범인을 잡아 중죄로 다스리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나라사랑 칼럼

진정한 나라사랑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신 승 우

봄이 왔는가 싶더니 어느새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마무리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다. 아마 '애국'과 '나라사랑'이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애국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의사나 유관순누나 같은 독립운동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저 평범하게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반면에, 나라사랑 하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느껴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라사랑의 한자어가 애국이고 애국의 우리말이 나라사랑인 것이다. 애국이라고 할 때에 비해 나라사랑이라고 하면, 한결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듯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 같다.

나라사랑이란 우리 누구나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현재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전통과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보다 가족과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사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10대 경제부국으로 만든 산업의 역군들,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와 경영인들, 수출 5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한 무역인들….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린 축구의 박지성, 피겨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야구의 박찬호 등등. 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소녀시대, 보아 등 많은 k-pop 가수들, 그리고 우리의 뛰어난 손재주를 세계에 알린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의 주역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적인 활동이 아닐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나라를 잘 지키는 군인,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곧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질서 지키기, 자연보호 등 생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 등도 애국행동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만을 애국자로 여기는 현재의 사고방식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하나가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우리 한글이 수난을 겪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마구 만들어내는 축약어와 신조어로 인해 한글의 의미가 와전되고 왜곡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잘 보존하는 일도 애국의 하나라면 이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나라사랑 운동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며칠 후면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온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나라사랑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과제라도 하나 찾아보면 어떨까? 태극기라도 잊지 말고 달아보면 어떨까? 〈호남지방통계청장〉

광주일보는 광주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릴레이 칼럼'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연재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기 고

배병우의 위대한 항해

김 동 석

여수출신 세계적인 사진작가 배병우의 전시회가 지금 여수에서 열리고 있다. GS-Caltex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1000억원을 들여 최근 개관한 공연전시관 '예울마루' 7층 전시관에 가면 6월 30일까지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지난 13일 오후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전시관을 찾았다.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 아직 어린애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훌륭한 전시회를 접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다 보면 예술적 심미안이 길러질 것이란 믿음에서였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대양을 향하여'(Sailing the seas)다. 바다를 주제로 하는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여수의 꿈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 시절 그의 예술 세계를 형성한 '여수와 바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흔히 배병우하면 사진작가로서의 인생을 일관해서 한국의 소나무에 천착한 사람, 그래서 한국의 소나무를 예술과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그의 소나무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번 전시회에 가면 그는 틀림없는 여수사람이고 유년시절 보고 자란 여수 앞바다가 그의 작품세계의 모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그의 고향 여수의 바다, 제주의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그의 말대로 "지중해 해변에서 나 자신에게 되묻던 '내게 바다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내 고향, 내 바다로 돌아온 것인가?"

사진 속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며, 눈부시다. 처음 바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약간은 충격적이었다. 여느 바다 사진과 다르게 진한 흑백 톤의 사진. 바다는 검고 그 위는 엄청난 여백이 자리 잡고 있다. 흰색의 여백이 눈을 사로잡았다. 저것이 뭐지, 뭐지, 뭐지… 부서지는 하얀 파도? 안개? 구름 낀 하늘, 그냥 흰 공간…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걸 계속 되묻고 있다. "참 좋더라." 하면서….

그걸 혹시나 알아낼 수 있을까 하여 나는 조만간 또 전시관을 찾을 것이다.

감상을 끝내고 전시관을 나와 아쉬움에 안내 데스크로 다시 갔다. 사진첩과 책이 있었다. 두툼한 책을 하나 집어들었다. 제목은 '배병우,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나처럼 사진 문외한에게는 짤막한 설명을 곁들여 그의 사진 인생 전반을 조망할 수 있어 좋았다. 책값은 4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수없이 발품 팔아 혼을 바친 배병우의 사진 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면 그건 덤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그 사진집을 한 권 사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소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알람브라도 있다. 유난히 '창덕궁'시리즈가 맘에 들었다.

사진 속의 창덕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쪽에 앉아 저쪽을 바라보는 창덕궁의 여름과 겨울 풍경이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이 사진을 보며 내가 외롭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하고 나에게 되묻는다.

자연과 몰아일체가 되어 있는 창덕궁 건축물, 그 안에 관찰자로서 내가 있는 것 같다. 사진 속에 나의 실체는 없되 내가 사진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진 속 내가 저쪽 풍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인지, 저쪽의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서로 바라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다시 전시된 사진을 보자.

그의 바다 사진에는 유난히 흰 공간이 많다. 진한 흑백의 섬은 흰 공간 아래 작게 배치되어 있다. 검은 바다에 보일 듯 말듯 불빛이 떠 있다. 우리가 보아 온 익숙한 바다지만 그 바다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보여주니 정말 그가 고맙다.

푸른 바다는 꿈이고 어둠 속의 바다는 동경이다. 우리는 유년의 고향의 품에 돌아와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여수의 쓰라린 근대사 때문에 항상 주눅 들고, 모난 돌이 되어 정 맞지 않기 위해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여수는 인물이 없다고 하고, 문화예술의 불모지처럼 인식되어 온 이런 공동체 속에 살아온 나에게 여수사람임을 자랑스럽게 해 준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수시 홍보기획팀장〉

無 等 鼓

펠르랭 장관

세계 각국, 각 분야에서 한국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 김 용 전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에 선출된데 이어 프랑스에선 한국계 여성이 사상 처음으로 장관직에 올랐다. 주인공은 프랑수아 올랑드 신임 대통령이 중소기업·디지털경제 장관에 임명한 플뢰르 펠르랭(한국이름 김진숙)이다.

태어난지 3일만에 서울 거리에 버려진 여자아이는 6개월 뒤 프랑스로 입양됐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양어머니는 그가 차별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키웠다. 그는 양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남들보다 2년 빨리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에 합격했다. 파리정치대, 국립행정학교 등 명문대학교를 거쳐 프랑스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그랑제콜)인 에섹(ESSEC·경영전공)을 졸업했다. 펠르랭은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나를 늘 힘들게 했지만 입양이라는 행운을 얻었다는 점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했다.

녹생당의 2인자인 장 뱅상 플라세도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다. 다음달 10, 17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나면 경제부처 장관 입각이 점쳐지고 있다. 7세 때인 1975년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입양된 그는 지난해 9월 아시아계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당선된 지 3개월도 채 안 돼 녹색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는 한국과의 인연을 늘 강조했다. 르 피가로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인이고, 입양됐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은 아시아계에 미국보다 훨씬 배타적인 곳이다. 미국처럼 아시아계 이민자 2,3세가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아시아계는 이번에 한국계 장관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비율로 따져 고아 수출국 1위인 한국. 하지만 낯선 땅에 버려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고 있을 수 많은 입양아들에게 이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입양아 임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불행을 행운으로 바꾼 이들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공영주차장 차량 훼손 "나몰라라" 일관해서야

시내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한 공영주차장에 2시간 정도 주차를 했다. 볼일을 다 본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자동차 운전석 쪽 문짝에 약 60㎝의 흠집이 나있었다. 자동차 문짝 쪽이면 주차를 하다가 또는 주차 후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살짝 긁힌 것일 수 있겠으나, 흠집의 길이나 모양새를 볼 때 누군가 아예 악의적인 의도로 긁은 게 분명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주차 관리소에서 폐쇄회로 화면을 볼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주차관리소 쪽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긁힌 것이 아니냐? 그곳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폐쇄회로 화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내가 주차한 곳은 폐쇄회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대답이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차관리소 쪽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불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방화도 일어날 수 있고,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도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구역이다. 폐쇄회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역이다"고 말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것은 비단 이 공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많은 공공시설 운영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김점숙·광주시 북구 충효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